

3월 일기장



이름 : 말레이 앳호

일기 쓰는 사람들

Amin

Kim









David

Bobo

Sonia

일기 예보

확인	언제	무엇을
	3월 10일 ~ 12일	큐티큐티 캠프 (베다니홈에서 주최하는 캠프. 베다니홈 학생들과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그리고 자원활동가와 스텝 등이 함께 함.)
	3월 8일 ~9일, 19일~23일	위즈마 하라판 (KL근처에 있는 장애인 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직업훈련까지 진행되고 있다.)
	3월 15일 ~25일	바하사 수업 (노리타와 함께한 수업. 우리 너무 열공했기에 수업시간 사진이 없다...)
		수화 수업 (샌디와 함께한 수업. 다양한 수화 게임을 알게 됨.)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먹었어요 (ㅋㅋ)
		수업도 만들고 다양하게 참여했어요

♥ 큐티큐티 캠프에서 보내는 첫 번째 날 일기



2012년 3월 10일. 날씨: 비왔다 갬.

베다니훔 캠프에 참여했다. 말레이시아에 온지 3일 만에 바로 참여하게 돼서 걱정되기도하고 설레기도 했다. 캠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봉사자들과 선생님들과 다 같이 함께하는 활동에, 정신이 없었다. 저녁엔 인디언들과 함께 카레를 먹었는데 손으로 먹는 문화에,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에스더와 수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 캠프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첫날부터 캠프에서 언어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들은 바하사를 쓰고, 자원봉사자들은 영어를 쓰고... 아.....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멍하니..)

♥ 큐티큐티 캠프에서 보내는 첫 번째 날 일기



또 지훈이가 맡은 아이는 엄청난 강적이었다. 한시도 가만있으려고 하지 않고 맡은 안동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배운 열은 지식으로 '나는 아직도 잘 안다' 는 착각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잘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우리와 KL에서 같이 와준 에스더가 많은 조언을 해주고 캠프기간동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아, 교장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신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우린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큐티큐티 캠프에서 보내는 두 번째 날 일기



2012년 3월 11일. 날씨: 흐리지만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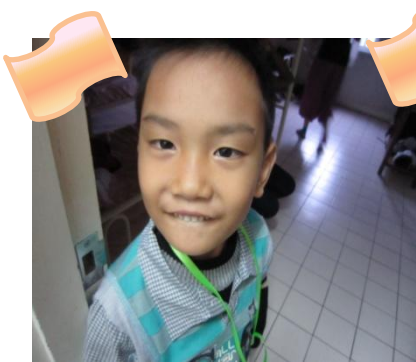
지훈이는 배가 너무 아팠다. 몸이 너무 아팠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어제보다는 나에게 조금 마음을 열었다. 아이를 보니 기분이 괜찮아졌다. 광호가 맡은 아이는 샤워실에서 응가를 누었다. 광호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할수 있을까... 아직 부모의 입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까.

아라가 맡은 아이는 나를 거부하고 때리기 시작했다. 에스더가 주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고, 그 친구는 아라에게 사과를 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다. 당황스러운 하루였다.

혜민이가 맡은 아이는 혜민이보다 다른 얼굴 하얀 자원봉사자들을 더 좋아했다. 그 동안 한국에서 가져왔던 편견을 양껏 받느느낌이었다. 나도 어쩌면 한국에서 그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했음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장기자랑 준비시간에 한국노래로 준비를 해서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있어 기뻐했다.

보영이는 다른 선생님 한분과 한 아이를 같이 돌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와야할지, 뭘 해야할지, 혼란스러웠다. 이미 아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처럼 아이라 많은 교감을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 큐티큐티 캠프에서 보내는 두 번째 날 일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영어, 바하사를 잘 할 수 있다면 캠프기간동안 많은 아이들과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아마도 이 고민이 5개월 동안 우릴 따라다니진 않을까?
나를 믿지 말고,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배워야겠다. 난 이곳에
왔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큐티큐티 캠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일기



2012년 3월 12일. 날씨: 춥고 맑아요

지훈이는 여전히 배가 아팠다. 심지어 심한 두통까지 몰려왔다. 그런데 그날은 지훈이가 맡은 아이도 아팠다. 저 꼬마도 나 때문에 아픈건가 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도움이 되줄 수 없는 나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했다. 잠시 후, 아이는 병원에 급하게 갔다. 작별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아 그런데, 나도 아프다.

혜민이는 아이들이 먹을거리나 용품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사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저렇게 쉽게 왜 사주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보영이는 맡은 아이가 처음으로 울어서 당황스러웠다. 보영이는 아마 바하사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 미안했다.

한편, 아라는 캠프를 끝내면서 정작 3일간의 캠프도 힘든데 베다니홈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막했다. 아, 그래도 캠프 끝났다. =3

❤ 위즈마 하라판...

희망 빌딩에서 보내는 일기



2012년 3월 8~9, 19~23일 날씨 : 항상 더웠음. 으악...

지훈이는 어느날 가드닝을 마치고 음악 수업에 투입되었다. 갑작스러웠지만 이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특수교사는 활기차고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이는 문득 한국에서 특수 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렸다. '교사는 광대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애들을 위해서 말이야.' 지훈이는 자신이 아직도 광대가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다.

광호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가드닝에 투입되었다. 첫 날은 아라, 헤민과 거의 노동 수준의 가드닝을 하면서 회의감을 조금 느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다. 가드닝 하이라이트, 20년된 나무 뽑기. 금방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그 날 광호는 전역 이후 처음으로 손에 문집 잡혀가며, 삽자루가 부러져가며 삽질을 했다.

❤️ 위즈마 하라판...

희망 빌딩에서 보내는 일기



보영이는 위즈마 하라판에 가는 내내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바하사를 할 줄 알았으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하루는,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보영이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며 좋은 교육자는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봤다. 그리고 보영이는 선생님 한 분에게 초상화를 그려드렸다. 그림을 그려주었을 때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며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지만 선생님과 그걸로 친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며 좋았다. 능력발견!

혜민이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면 동정은 아니지만, 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럴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혜민이는 자신이 아직도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 빚대어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말이다.

어느 날 하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를 때리고 괴롭혔다. 그런데 혜민이는 바하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게다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혜민이는 바하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위즈마 하라판...

희망 빌딩에서 보내는 일기



아라는 처음에 환경 미화를 하면서, 너무 속상했다.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고작 하는 게 종이 오리고 꽃 그리기 라니..'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자신 스스로가 한심했다. 정작 나는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들만 중요하게 보고 노동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구나 싶어서.. 선생님이 행복한 것도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라는 '직업에도 귀천이 없듯이 모든 일도 소중한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구나' 싶었다.

그래도 위즈마하라판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고,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는 던져줬다.

이제 베다니 홈으로 간다. 잘 할 수 있겠지.

그럼, 위즈마하라판 안녕!



바하사수업을 들으며 보내는 일기

복레? 따함? 베리 굿!



3월 15일~ 25일 날씨 : 저녁이어서 그런지 어두웁...으잉?

보영이는 바하사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식당이나 놀러 가는 곳에 가면 아는 단어가 보이면서 바하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모르는 단어를 틴틴이 적어와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다. 다만 선생님이 한번도 빼놓지 않고 지각 하시는데 싫었다. 지훈이는 바하사 수업 첫 날 기분이 나빴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내 이름을 말하니까 김치 (지훈의 영어 이름은 KIM)랑 비슷하다고 했다.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김치가 왜? 그래도 바하사 수업은 재밌었다. 내 스스로에게 “괜찮아, 앞으로 수업은 즐거울거야.”라고 위로했다.

광호는 바하사 수업은 여전히 영어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 리스닝이 느는 것 같다. 그런데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분명 잠시 화장실 가시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어딜 다녀왔는지 묻었더니 식사하시고 왔다고 했다.

스파게티.....Z

한편, 아라는 선생님의 성격이 화끈해서 좋았지만 수업 진행 방식이 아라와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바하사 수업이 아라에게



바하사수업을 들으며 보내는 일기

복레? 따함? 베리 굿!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 수업 시간이 저녁이라서 많이 피곤했다. 그리고 헤민이는 수업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재미있지는 않았다. 아라가 느낀 것처럼 저녁 늦게 수업이 진행되어서 많이 피곤했었던 탓이다. 오히려 바하사 수업의 마지막 날, 대학생친구들을 만나서 놀았던 시간이 더 재밌었던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럼 우리 모두 Boleh!



수화 수업을 들으며

보내는 일기



혜민이는 수화 시간이 항상 즐거웠다. 여러 게임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청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한국에서도 수화 공부를 계속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텐데.

아라는 이미 한국에서 배운 단어를 수업 시간에 2-3번까지는 복습하는 기분이어서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는지에 관해 선생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미리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다면 수업시간이 더 즐겁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 이후에는 다양한 게임도 하고, 모르는 단어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광호는 수화 수업 게임이 정말 신난다. 광호는 자신이 관찰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난 정말 수화를 잘 따라하는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자격증도 따고 싶다.

보영이는 수화 수업이 그다지 재미없다. 게임은 재밌었지만 말이다. 스스로 관찰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 수화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래서 더욱 더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지훈이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샌디에게 너무 까부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먹고 보고 즐기고!



미드벨리! (엄청난 쇼핑몰 백화점 규모도 어마어마)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돌솥 비빔밥!!!!!!!!!!!!!!!!!!!!!!



차이나타운!

(길거리 매장과 중국음식점이 모여있는 곳)

한국 음식점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다. 이미 그곳은 이미테이션 천국이였다. 우리는 전 세계 짬뽕이 그 곳에 있는 줄 알았다. 또, 바가지는 어찌나 대단한지 샹넬 가방이 250링깃에서 50링깃으로 바뀌는 기적도, 나는 보았다. 우리는 함께 갔던 에스터와 조세핀이 우리를 계속 챙겨주는 게 고마웠다.

아라는 아파서 함께 가지 못해 아쉬워한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차이나 타운은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는곳이였다.

우리에게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면, 나아질까.



먹고 보고 즐기고!



트윈 타워

짱이었다. 괜히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같은 시간 소녀시대의 공연이 트윈타워에서 열리고 있었다.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야외 광장에 자리잡은 엄청난 인파를 봤다. 말로만 들었던 한류가 이젠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인파를 보니 괜히 내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 이게 아닌데...

아참, 그리고 이곳에서 효연의 인기!!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 했다. (그녀가 카메라 단독 푼샷을 받을 때 터져나왔던 엄청난 함성은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그것과 비슷했다.) 혜민이는 랜드마크인 이곳의 전체적인 야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야지. 서울보다 더 좋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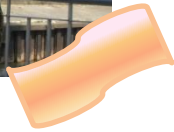


내셔널 뮤지엄

박물관을 도는 내내 아이렌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웠다. 우리는 아이렌의 설명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혜민이는 이곳을 다녀오면서 자신이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맞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말레이시아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먹고 보고 즐기고!



말레이시아 대학생들!

우리가 만난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은 정말 착했다. 아이렌에게 전 날, 현지 대학생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이나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일에 대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한 두려움만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였다. 정말 말레이시아 대학생 친구들이 우리들을 위해 하루 종일 너무 고생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보답이라고는 고작 함께 사진을 찍는 일밖에 없다. 미안했고, 고마웠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다.



부켓 빈탕

이건 뭐 서울이다. 무서운 아이들이 많은 강남, 홍대 같았다. 유명한 야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 못했다.
흑흑.....



먹고 보고 즐기고!



센트럴 마켓

오래된 역사에 비해 생각보다 볼 것도 없고 초라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면 다르려나.

센트럴 마켓을 다니다가 한국인 무리들을 만났다. 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 앞에 있던 한 한국인 커플이 생각났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더워죽겠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왜 긴바지를 입고 다니지? 반팔, 반바지 입으면 되지. 진짜 이상해...' 라고 말했다. 그 커플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디를 간다면, 최소한 그 나라의 문화나 예절을 배우고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돈을 쓰는 건 좋지만 돈을 쓸 때는 조금 더 예의있게, 공정하게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먹고 보고 즐기고!



Kraf(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 일정 기간동안 열림)

가방이랑 책갈피, 송곳 등을 사서 좋았다. 하지만 약간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래도 좋아 괜찮아 하하하하...



나이트 마켓

(매주 목요일에 열리던 곳. 다양한 과일이 기다리고 있음!)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역시 그 나라를 들여다보려면 시장을 구경해야 하는구나.



먹고 보고 즐기고!



후세인 카페에서 먹었던 커리는 일년 전 지훈이가 인도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맛이였다. 맛과 향이 그 때의 내 모습, 그 곳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음악과 냄새는 추억을 돌이키게 만드는, 훌륭한 매개체인 것 같다.(ㅋㅋ오ㅋㅋ크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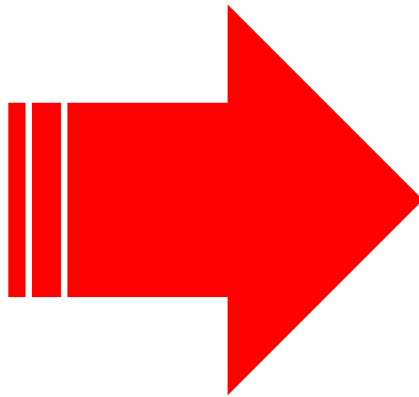
주문체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제대로 된 주문이란 없다. 그래도 괜찮다. 여기는 말레이시아니깐.

일반적인 식당에는 음식 종류와, 음료수 종류가 엄청 많다. 어떤 식당은 심지어 메뉴가 100가지가 넘어간다. 고르기가 힘들다. 뭔지도 모르는데 엉엉.

아, 모든 음식점엔 다 할랄 마크가!



먹고 보고 즐기고!



이발소(지역 이발소의 경우, 특정 헤어 스타일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었음. 그 중에서 고르라고 했다. 결국 광호도...)

광호는 현지인이 되어보고자 YMCA에 있는 현지 이발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한번 현지인 스타일을 해보고 싶었다. 결과는 웃겼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나마 현지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할 용기는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업 참여 했지롱

SCC (씨니어 소셜 클럽.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조, 댄스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음.)

라인댄스시간에 흘러나오는 한국노래가 신기했다. 이런 곳에서도 한국노래가 나온다. 라인댄스를 따라해보니 간단한 동작인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텐데. 라인 댄스 어려워 후후.

하모니카 수업 (KL YMCA에서 준비하는 수업 프로그램 중 하나.)

하모니카 선생님은 정말 즐거우신 분이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았다.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대답을 잘 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웠다.)

우리는 하모니카 수업내내 주인공이 된 것 처럼 주목을 받았고 수업의 내용도 주로 한국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 우리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연주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기존에 수업 듣는 분들한테 죄송했다. 일주일에 한번 밖에 없는 시간을 방해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데프 비트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 복을 이용한 음악 공연을 펼치고 있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업을 생각할 때, 음악과 관련된 것은 배제해야한다는 편견을 깨 수 있었던 날이었다.

나도 한번 귀를 막고 가슴으로 음악소리를 들어봤다.



수업 참여 했지롱



코다 수업

(KL YMCA에서 운영하는 수업. 청각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청각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이 수업 대상이다.)

아이들과 놀 때, 뽕을 맞고 의사놀이를 하다가 아이에게 주사를 맞아서 너무 슬펐다.(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고 자유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자유로운 형식의 수업이더라도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바하사나 영어를 조금 더 잘했다면 많은 말을 걸어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카포에라 (데프들이 춤이나 무예를 통해 리듬을 체험하는 수업)

생각보다 기본 스텝, 리듬이 재밌어보였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익힌 다음에 순서대로 합을 맞춰보는해 시간은 특히 즐거웠다. 데프비트보다 카포에라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걸 보면서 홍보에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카포에라 회원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열정적인 그 모습이 인상깊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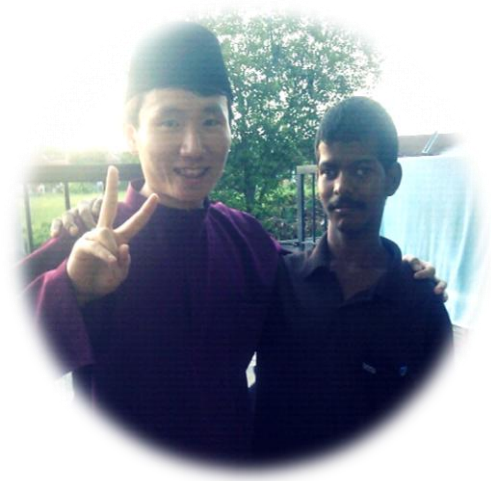


아라 (Sonia)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 더불어 잘 살다 오겠다고 다짐했었다. 한 달 동안 살다 보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때는 너무 잘난 척 했고 어떤 때는 너무 수동적으로 묻어가려고만 했었다. 이런 나를 돌아보니 그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불어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왔던 것 같다. 무엇이 더불어 사는 것일까? 나는 남은 네 달을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고민이 많아진다.

광호 (David)

이렇게 한 달이 흘렀다. 가끔은 내가 여기 왜왔나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무더위 속에 팀원들의 감정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하루하루 지났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를 몸으로 부딪히고 현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이곳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고 그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내가 대견스럽기도 하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 해 내기 보다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월은...

보영(Bobo)



정신없이 달려온 한달이다. 즐거운 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던 날도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중인지...등 나에게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힘들 때 내 나만의 탈출구와, 되새길만한 가치 등을 조금 찾았다. 지금처럼 고민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다.....

지훈(Kim)

나는 아직도 적응중이다. 아직까지는 김치가 먹고 싶고, 아직까지는 시원한 거실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달달 떨면서 TV에서 하는 축구 중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결국, 모든 건 마음의 문제였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헤매야겠다. 때로는 길을 잃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3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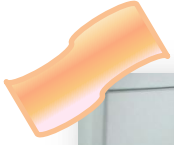
혜민 (Amin)



살아가면서 지금과 같은 시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한국에서의 나는 대학교 4학년이고 어떤 직업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이지만, 싶었다. 그래서인지 지금이 좋으면서도 계속 불안함을 느꼈다. 아이들 얼굴만 봐도 좋았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말레이시아 사회구조에 대해 알게 될 때는 정치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욕심을 버리자고, 성공하게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 조금 더 천천히 23살의 나를 잊어야겠다.



말레이 약호의 3월은...



큰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고



Wifi에서 허우적 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3월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생님이자
친구인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곁에 있어 고마운 이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녕, 4월에 만나요!





끝까지 앓호